**막0124 Note**

**◆지식과 믿음**

막0124. 말하되,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당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당신께서 오셨나이까?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교회에 나가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 변하지 않고, 세상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고 안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딸기나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많이 보았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요

거짓말, 험담, 사기, 탐욕 간음의 열매를 습관적으로 맺고있는 많은 포도나무를 저는 교회에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인물이라는 것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것에 동의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마귀가 마귀가 아니고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일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Ω약0218.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함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네 행함들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내 행함들에 의한 나의 믿음을 네게 보여 줄 것이니라.

약0219. 한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네가 믿고 있느니라, 네가 잘 한 일이니라, 악령들 역시 믿고 또 떠느니라.

Ω약0220. 그러나, 오 속이 비어있는 자여, 행함들이 없는 믿음이 죽어 있는(생명 없는) 것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많은 교인들이 지식과 믿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변적인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 지식을 가슴으로 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슴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람이 가슴에 사무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병이 낫는 것을 안다는 지식으로 그 사람이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사서, 그것을 복용해야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청종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 포도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혈액을 수혈받아,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로 그 사람의 발가벗겨진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07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다음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눅0646.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며,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느냐?

Ω마0721. 내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낱낱의 자가 천국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마0723. 그리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기노스코:알다,허락하다,알게 되다,느끼다,인식하다,알아차리다,확신하다,이해하다) 못하였느니라, 내게서 떠나라, 너희 불법[아노미아:아노모스(불법의,율법 없이,위법자,비합법적인)에서 유래, 불법,율법의 위반,악함,부정,율법을 어김,불의]을 행하는 자들아(불법의 열매를 맺는 자들아).

롬0213. {이는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법한 것이 아니고, 대신에 법규를 행하는 자들이 적법하다고 여겨짐이라[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의롭다고 간주하다,흠이 없다고 여기다(보이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보이다,간주하다,자유하다,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의롭게

되다/ 히브리어 짜다크(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의롭다,의롭게 하다,의를 행하다,의로운 상태가 되다)에 상응]},

돌아서지 않고(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세상의 열매를 습관적으로 맺으며, 교회에 백만번 천만번 나가봤자 다 헛된 짓입니다.

십일조 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맺고 있으면, 다 헛된 짓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나 사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사변적 동의에서 더 나아가, 가슴으로 믿어, 청종하여,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붙어있으면(청종하면) 하기 싫어도 저절로 포도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나?

이는 무지한 사람들의 호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말에 속지 마십시요

이는 바꿔서 말하면, “지식으로 구원받지, 열매로 구원받나”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행함(열매)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구약시대의 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의 행함(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쉬운 믿음(지식)만 앞세우고, 어려운 행함(열매)을 뒤로 감추고서, 명목상의 교인들을 증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세상사람들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사람들보다도 못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청종할 뜻이 없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요, 하나님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치욕을 돌려드릴까 염려됩니다. 줄입니다.